

영암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3040세대 직장인 중심 오늘 까지 진행

9대 수칙 실천...조기 사망 위험을 감소

영암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이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040세대 직장인 중심으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의 제한된 상황에서 영암군보건소 민원실, 덕진면사무소, 군서면사무소에 자기혈관 숫자알기 소규모 레드서를 존을 설치하여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3040세대 직장인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및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방역수

칙 준수 하에 추진했다.

심뇌혈관질환은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총칭하며,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위험한 질환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금연, 절주, 운동, 저염식, 즐거운 마음가짐, 적정 체중유지, 정기적 검사, 꾸준한 치료, 뇌졸중 등 응급 증상 발생즉시 병원이송) 실천만으로도 중증 심뇌혈관질환



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자기혈관 숫자 알기부터 시작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정부 공모사업 선정

14개 지역현안사업 '탄력'

무안군은 2020년 상반기 정부 공모사업 신청결과 14개 사업, 총 사업비 82억 6천만 원(국비 41억, 지방비 36억 6천만 원, 자담 5억)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확정으로 열악한 군비 재원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기대하게 되었다.

특히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비 18.4억)에도 선정되어 전력비용 절감에 의한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2021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농촌유류시설 창업지원사업, 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기관 지원, 무안스포츠파크 안전난간 및 본부석 개보수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군은 금년 하반기에도 어촌뉴딜 사업, 자연친화형 수산종자 생산기지 구축사업 등 신청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11여개 공모사업에 대하여도 지역 내 산·학·연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전라남도, 해당 중앙 부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정부의 공모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주민숙원사업의 해소가 시급하다"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논리를 개발하고 전라남도와 중앙 부처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정부공모사업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이달 29일까지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목포시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2020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이며 영업점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

나, 영업점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으로 평가받은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

이다.

특히, 2차 현지조사는 ▲주방, 객실, 화장실, 식자재 창고 등 위생상태 ▲종업원의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및 친절도 ▲덜어먹기 용기사용 여부 ▲좋은 식단제 실천 여부 등을 평가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소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희망 업소는 목포시 보건위생

과(270-8913),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282-8184)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모범 업소를 발굴해 지정·관리함으로써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음식문화 개선에 함께 참여할 영업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전국 1위' 쾌거

농기계 임대사업 4년 연속 최우수군 선정



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142개 평가 지자체에서 '전국 1위'의 영예와 더불어 4년 연속 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실적, 임대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 7개 분야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전국 종합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영광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 및 조직 △사업성과 △사업지속성 △정부 정책사업 참여 △농기계 사용교육 △이용자 만족도 등 분야별 전체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기계 교육시설 확충, 다수

의 임대농기계 확보, 운영인력 확대, 높은 농기계 임대실적을 비롯한 각종 농기계 교육훈련을 통한 농업인들의 자격증 취득에 기여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 전국 1위의 위상에 걸맞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상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노후된 농기계를 대체 구입하여 임대하는 등 농업인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지역주민 70여 명 대상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함평군보건소(소장 정명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2일 보건소에 따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 받아 총 70여 명의 주민 건강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는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검진을 실시하고 체형수기를 공모해 우수자 3편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종 검진의 경우 당국 방역지침에 따라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1일 10명 이내의 사전 검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10월 중 실시 예정인 참여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